

The Effect of Strength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Cues on Unethical Decision Making of People with Psychopathic Tendency

Hwang Youn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related to unethical behaviors of psychopaths. This study conducted experiments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 degree of unethical decision making would differ depending on strength of moral emotions and cues of moral disengagement people with psychopathic tendency may experience in the situation of moral dilemmas. The psychopathic tendency group and the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an experiment. After identifying a psychopathic tendency group and a normal control group, the authors assigned these two groups with examination of moral dilemmas that strength of moral emotions and the cues of moral disengagement are controll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ain effects of group, strength of moral emotions, and cues of moral disengagement. Second,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group (psychopathic tendency vs normal control), strength of moral emotions (stronger vs weaker), and condition of moral disengagement cues (present vs absent) were identified. Finally,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proposed.

Keywords: psychopathy, morality, unethical decision making, moral emotions, moral disengagement

정신병질자들이 정상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Koenigs, Kruepke, Zeier, & Newman, 2012). 이를 반영한 연구들은 주로 Kohlberg (1966)의 도덕발달 6단계 모형을 통해 정신병질자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평가해왔는데, 일련의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신병질자들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저조하거나(Foder, 1973; Jurkovic & Prentice, 1977), 또는 차이가 없거나(Lee & Prentice, 1988; Trevathan & Walker, 1989), 오히려 정신병질자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Correspondence to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Wommi-gu, Bucheon, 14662, Korea; E-mail: yhlee@catholic.ac.kr

Received Feb 1, 2016; Revised Jun 1, 2016; Accepted Jun 29, 2016

This paper is taken in part from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first author (Hwang Youn, 2014),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und, 2015.

(Link, Scherer, & Byrne, 197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이 도덕적 추론 능력이나 지식의 결합에 기반하기보다는 그러한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Kiehl, Aharoni, & Armstrong, 2012). 따라서,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하여 특정 능력의 손상을 통한 설명을 넘어서, 그러한 능력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 및 과정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Greene과 그의 동료들(Greene, 2007; Greene, Nystrom, Engell, Darley, & Cohen, 2004; 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에 의해 제안된 도덕판단의 이중과정이론에서는 개인이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즉각적으로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정서경험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행위결과의 유용성보다 행위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써 비윤리적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행위결과의 유용성 및 동기와 관련된 고려가 정서경험을 극복하게 될 경우, 비윤리적 행동을 수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윤리적 의사

결정엔 행위과정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기제와 행위결과의 손익 및 동기를 고려하는 인지적 기제가 모두 관여하는데 이중 어떤 기제가 우세하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Ugaziou, Lamm, & Singer, 2011). 본 연구는 정신병질 성향자들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서 및 인지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하였다.

차원적 구조로서의 정신병질

정신병질은 죄책감·후회·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이 결여된 이들을 설명하는 성격유형으로 기만적이고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행동특성을 보인다(Glenn, Kurzban, & Raine, 2011). 정신병질에 대한 개념화는 Cleckley (1941)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졌는데(Millon, Grossman, Millon, Meagher, & Ramnath, 2004), Cleckley (1941)는 반사회적인 행동특성과 더불어 정서 및 대인관계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신병질을 일반적인 범죄자 집단과 명백하게 구분한 바 있다(Hicks, Markon, Patrick, Krueger, & Newman, 2004).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특성을 강조하는 DSM-5의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달리, 정신병질은 반사회적 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잠재적 소인으로서 성격특성을 강조하고 있다(Lilienfeld, 1998).

최근의 분류학적 연구들은 정신병질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범주라기보다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차원적 구성개념이라 제안하고 있다(Hare & Neumann, 2008; Marcus, John, & Edens, 2004; Walters, Duncan, & Mitchell-Perez, 2007). 이같은 주장은 정신병질 측정도구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신병질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Hare, 1993)에 기반한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즉, PCL-R의 요인구조가 성인 및 청소년 범죄자 집단,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정신과 환자 집단, 대규모 지역사회 표본집단에서 유사 또는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Jones, Cauffman, Miller, & Mulvey, 2006; Neumann, Hare, & Newman, 2007; Vitacco, Neumann, & Jackson, 2005), 이는 지역사회 표본과 범죄집단 간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Benning, Patrick, & Lacono, 2005; Hare & Neumann, 2008). 이러한 사실은 정신병질에 관한 연구가 재소자 집단에 제한되기보다는 정신병질 특성 수준에 따라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Edens, Marcus, Lilienfeld, & Poythress, 2006; Falkenbach, Stern, & Creevy, 2014). 또한, 범죄행동이 정신병질의 필요조건임을 고려할 때(Hare, Hart, & Harpur, 1991; Vitacco, Neumann,

& Jackson, 2005), 재소자 표본이 정신병질 집단이라기보다 범죄행동으로 모인 이질적 집단일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Farrow & Woodruff, 2007). 이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는데 성공한 ‘성공적 정신병질(successful psychopath)’과 ‘성공적이지 못한 정신병질(unsuccessful psychopath)’ 간의 구분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Babiak & Hare, 2006; Lykken, 1995; Stevens, Deuling, & Armenakis, 2012). 따라서, 정신병질에 관한 선행연구가 재소자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Falkenbach, Stern, & Creevy, 2014), 정신병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표집이 요구된다(Lilienfeld, 1998).

정신병질에 관한 이상과 같은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최근 들어서는 지역사회 표본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Mullins-Nelson, Salekin, & Leistico, 2006; Neumann & Hare, 2008; Seara-Cardoso, Neumann, Roiser, McCrorie, & Viding, 2012; Warren & Clarbour, 2009).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대중성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들¹⁾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표본 및 대학생 집단의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병질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거나, 공감·가치관·공격성 등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 및 통제집단과의 비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Lee & Salekin, 2010; Stevens, Deuling, & Armenakis, 2012; Youn & Lee, 2016).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서적 기제: 도덕적 정서의 강도

윤리적 의사결정과 정서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윤리적 갈등상황을 다룬 시나리오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Hauser, Cushman, Young, Jin, & Mikhail, 2007; Nichols & Mallon, 2006; Schnall, Haidt, Clore, & Jordan, 2008; Shin, 2015). 가장 널리 알려진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로는 소위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를 들 수 있다(Thomson, 1986).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본선로 위에서 작업 중인 다섯 명의 인부와 측선로 위에서 작업 중인 한 명의 인부, 그리고 다섯 명의 인부들을 향해 본선로 위를 질주 중인 트롤리 한 대가 등장한다. 시나리오상의 또 다른 인물인 실험참여자는 스위치를 이용해 트롤리의 진행방향을 측선로로 바꿀 수 있다. 즉,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하기 위해 한 명의 인부를 희생시켜야 할지를 실험참여자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결과기반적 사고(outcome-based moral thinking)와 원칙기반적 사고(rule-based moral thinking)를 반영

1)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신병질 척도로는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성격 질문지(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 Lilienfeld & Widow, 2005),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척도(Self-Report Psychopathy Scale-III, SRP-III; Paulhus, Neumann, & Hare, 2011), Levenson의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LSRP; Levenson, Kiehl & Fitzpatrick, 1995) 등이 있다.

하고 있다.²⁾ 이를 다른 선행연구들은 결과기반적 사고, 즉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하기 위해 한 명의 인부를 희생시키기로 한 의사결정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Greene et al., 2001; Hauser et al., 2007). 그러나, 트롤리 딜레마를 약간 수정한 연구에서는 뒤바뀐 결과가 보고된다. 즉 Greene 등(2001, 2004, 2007)은 낯선이 한 사람을 다리 위에서 직접 밀쳐 떨어뜨림으로써 질주 중인 트롤리로부터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대답한 원칙기반적 의사결정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Greene 등(2001, 2004, 2007)은 후자의 상황이 보다 ‘개인적인’ 것으로서 실험참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정서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결과기반적 의사결정 또는 원칙기반적 의사결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Conway & Gawronski, 2013). 여러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설명을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를 제시받았을 때 전측두엽 치매 및 복내측 전전두 피질 외상 등 정서 중추가 손상된 환자들이 정상집단보다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Koenigs et al., 2007; Koven, 2011; Mendez & Shapira, 2009).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신병질자들이 수치심, 죄책감, 당혹감(이하, 도덕적 정서) 등 도덕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서경험 (Tangney, Stuewig, & Mashek, 2007)이 둔감하거나 결여돼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Benjamin, 1996; Millon et al., 2004; Stone, 1993). 이를 통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정신병질자들은 결과기반적 사고가 우세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고자 한 경험적 시도들은 예상과 다르게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Cima, Tonnaer, & Hauser, 2010; Dolan & Fullam, 2010; Glenn, Raine, Schung, Young, & Hauser, 2009).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모두 트롤리 딜레마와 같이 시비가 불분명한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를 활용했었다. 만일,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자기 관여 수준이 높은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가³⁾ 제시되었다면, 정신병질자들의 병리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다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신병질자들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결과기반적 사고가 우세할 것이라는 가설은 정서 중추가 손상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병질자들은 도덕적 정서경험이 결여되어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Cleckley, 1941; Karpman, 1948; Millon et al., 2004).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정신병질은 범주적 구분이 아닌 차원적 개념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Hare & Neumann, 2008; Mullins-Nelson, Salekin, & Leistico, 2006; Neumann & Hare, 2008). 따라서, 정신병질자들의 도덕적 정서경험도 결여나 손상이 아닌 수준 또는 강도의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정신병질이 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비윤리적 행동이 정상인들과 다른 정서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면(Hare & Neumann, 2008),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자극의 강도에 따라 정신병질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인지적 기제: 도덕적 이탈

Kelman (1973)을 비롯한 일군의 연구자들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의 실패엔 도덕적 행동에 관여하는 인지적 왜곡 기제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다양한 인지적 왜곡 기제들을 밝히는데 노력해 왔다(Diener, 1977; Opotow, 1990; Staub, 1989). Bandura (1991, 1999)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인지이론을 체계화한 바 있는데,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저마다의 도덕적 기준과 자기조절기제에 의해 통제된다고 설명한다(Bandura, Barbaranelli, Caparara, & Pastorelli, 1996). 여기서의 자기조절기제란,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판단의 결과가 부정적일 때, 도덕적 정서에 따른 자기처벌을 경험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Youn & Lee, 2016). 그러나, 스스로의 비윤리적 행동을 재해석하는 인지적 왜곡이 이루어질 경우 자기처벌로부터 면책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자기 조절기제가 비활성화 되기도 한다. Bandura (1991, 1999)는 개인의 자기조절기제가 비활성화 될 때 비윤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작용하는 인지적 왜곡 기제로써 도덕적 이탈을

2) 결과기반적 사고와 원칙기반적 사고는 도덕적 판단에 관한 오랜 철학적 논쟁인 공리주의적 관점(utilitarianism)과 의무론적 관점(deontology)을 반영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행위란 최대 다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선의 행위로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반면,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도덕적 행위는 윤리주의적 원칙을 준수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수단 및 과정을 통해 도덕성 여부가 결정된다. 두 관점은 행위의 결과와 과정 중 어느 것이 강조되는가에 따라 구별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규범윤리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관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Christensen & Gomila, 2012). 그러나, 본 연구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결과를 중시하거나 원칙을 준수하는 전형적인 행동패턴을 기준으로 결과기반적 사고와 원칙기반적 사고로 구분하였다(Lammers & Stapel, 2009). 이러한 구분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다른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온 방식이다(Lee, Sul, & Kim, 2014).

3) 예: “인물 A는 해고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로서, 큰 빚을 지고 있으며 대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A는 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안에는 상당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다. 그 지갑에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으나, A는 주인에게 지갑을 되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갖기로 결정했다” (Tyszka & Zaleskiewicz, 2012; Youn & Lee, 2016 재인용).

제안하고 있다.⁴⁾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경미하거나 매우 심각한 비윤리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이탈이 관여하고 있으며(Shulman, Cauffman, & Piquero, 2011), 도덕적 이탈의 반복된 경험은 습관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Bandura, 1991). 즉,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빈번하게 정당화하는 개인은 도덕적으로 이탈된 태도를 견고하게 발달 시키게 되며, 이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심리적 내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Hyde, Shaw, & Moilanen, 2010). 보호시설 및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와 관련한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덕적 이탈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공격성, 폭력행동, 비행 등 반사회적 행동에 더 자주 연루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Bandura et al., 1996; Kwak, 1998; Mulford, 2004; Park, Kim, & Kim, 2007), 또한, 최근 들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Barnes 등(2005)은 성인의 도박행동에 도덕적 이탈이 관련됨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공감, 냉소주의, 도덕적 정체성, 정신병질 특성 등 다양한 개인차와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였다(Detert, Treviño, & Sweitzer, 2008; Stevens, Deuling, & Armenakis, 2012).

도덕적 이탈은 상기한 것처럼 안정적인 개인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맥락이나 상황의 영향 또한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ore, 2008; Paciello, Fida, Tramontano, Lupinetti, & Caprara, 2008). 이를 반영하여, 도덕적 이탈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비윤리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넘어서,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 및 핫소스 패러다임(Hot Sauce Paradigm; Lieberman, Solomon, Greenberg, & McGregor, 1999) 등을 이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맥락적 특징 및 상황적 단서들과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Gini, Pozzoli, & Bussey, 2015; Stanger, Kavussanu, Boardley, & Ring, 2013; White-Ajmani & Bursik, 2014).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인적 이익과 관련돼 있거나 자기관여 수준이 높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는 다양한 상황적 단서들이 도덕적 이탈을 촉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Kish-Gephart, Detert, Treviño, Baker, & Martin, 2014; Shu, Gino, & Bazerman, 2011; White-Ajmani & Bursik, 2014). 즉, 명백하거나 모호한 상황적 단서들이 비윤리적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됨으로써 도덕적 이탈의 유용한 재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갈등상황에 존재하는 도덕적 이탈 단서는 도덕적 이탈을 촉진시킴으로써 비윤리적 행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이탈이 도덕적 정서라는 자기처벌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고

려해 볼 때(Shulman, Cauffman, & Piquero, 2011), 정신병질자들에 게도 이와 동일한 예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정신병질 특성과 도덕적 이탈 간의 정적인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나(Stevens, Deuling, & Armenakis, 2012), 정신병질자들의 제한된 정서경험을 고려해 볼 때, 도덕적 정서의 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정신병질자들의 경우, 도덕적 정서가 충분히 강력할 때만 도덕적 이탈을 통한 비윤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면, 도덕적 정서가 미약하게 자극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는 도덕적 이탈 과정 없이도 비윤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약한 도덕적 정서 자극으로는 이들의 도덕적 이탈을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Greene (2007)의 도덕판단의 이중과정이론에 기반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인지 및 정서 과정을 통해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시비가 분명하고 자기관여 수준이 높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정신병질자들의 정서적, 인지적 의사결정 기제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비가 분명하고 자기관여 수준이 높은 윤리적 갈등상황으로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는 정신병질자들의 결과기반적 사고 성향이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신병질자들의 도덕적 정서 경험이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이라면, 강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이탈 단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정서경험이 도덕적 이탈을 작동시킬만한 역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도덕적 이탈 단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비윤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반인들의 경우,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원칙기반적 사고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은 일반인들의 원칙기반적 사고를 더욱 자극하게 되는 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약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는 원칙기반적 사고와 결과기반적 사고가 경합하게 됨으로써 도덕적 이탈 단서 유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도덕적 이탈은 비윤리적 행동과 비윤리적 행동의 파급효과, 피해당사자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명명, 장점비교, 책임전가, 책임감 분산, 결과의 왜곡/무시, 비인간화, 비난의 귀인 등 8가지 인지적 왜곡기제들을 포함하고 있다(Youn & Lee, 2016).

본 연구에서는 집단×도덕적 정서의 강도×도덕적 이탈 단서 유무의 연구설계를 통해 이상과 같은 예상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들을 제작하고, 각 시나리오들의 도덕적 정서의 강도 및 도덕적 이탈 단서 유무를 조작하였다. 이를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다음의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일반집단보다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강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보다는 약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비윤리적 의사 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도덕적 이탈 단서가 없는 윤리적 갈등상황보다는 도덕적 이탈 단서가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 네 번째 가설은 강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일반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도덕적 이탈 단서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가설은 약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일반집단은 도덕적 이탈 단서가 없을 때보다 도덕적 이탈 단서가 있을 때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여섯 번째 가설은 강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정신병질 성향집단은 도덕적 이탈 단서가 없을 때보다 도덕적 이탈 단서가 있을 때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 일곱 번째 가설은 약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도덕적 이탈 단서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

대학생 662명을 대상으로 Levenson (1995)의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LSRP)를 실시하였다. 무성의하게 작성된 15부를 제외하고 총 647부의 설문지가 회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sychopathic Tendency Group and Normal Control

| | Psychopathic tendency (n=50) | | Control (n=50) | <i>t</i> |
|------------|---------------------------------|--------------|-------------------|----------|
| | Mean (SD) | Mean (SD) | | |
| Age | 21.22 (3.77) | 21.58 (5.14) | -0.40 | |
| Gender M | 19 | 20 | | |
| F | 31 | 30 | | |
| LSRP total | 69.48 (3.60) | 44.92 (7.09) | 21.80*** | |

****p*<.001.

수되었다. 정신병질 성향집단은 LSRP 총점이 상위 10% 이내에 포함되는 설문 응답자들 중 실험참가에 동의한 50명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집단은 LSRP 총점이 상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설문 응답자들 중 실험참가에 동의한 50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LSRP 점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는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 (1995)이 재소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기만경향, 권모술수, 냉담성 등을 평가하는 1차 성 정신병질 요인과 불안 민감성, 충동성, 성마름 등을 평가하는 2차 성 정신병질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검자는 전체 26문항의 질문 내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보고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ee와 Gong (2007)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7, 1차성 정신병질 요인은 .74, 2차성 정신병질 요인은 .61로 나타났다.

Table 2. Example of a Pair of Scenarios

| The conditions without the cues of MD | The conditions with the cues of MD |
|--|---|
| You are working as an assistant in an office of a school. Since recently you passed an recruit examination and you are about to move to a better job, you need to find your replacement. However, it turned out to be very hard to find your replacement. Your current job is busy with a lot of phone calls and a number of miscellaneous work but provides a modest income. Therefore, people who were initially interested in the job would eventually turn down this job when they realize the situations. Today, you are introducing your current job to applicants as a modest paying job but with few work. | You are working as an assistant in an office of a school. Since recently you have passed an recruit examination and you are about to move to a better job, you need to find your replacement. However, it turned out to be very hard to find your replacement. Your current job is busy with a lot of phone calls and a number of miscellaneous work but provides a modest income. Therefore, people who were initially interested in the job would eventually turn down this job when they realize the situations. |
| <u>One year ago when you took over this job, you decided to do so since your predecessor deceived you by telling that this position involves few work and a lot of free time.</u> | <u>Today you are introducing your current job to applicants as a modest paying job but with few work.</u> |

(factor of dangerous effects)

도덕적 정서 및 이탈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의 강도 및 도덕적 이탈 단서 유무에 따른 실험참여자들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경향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도덕적 정서 및 이탈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제작 과정은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각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윤리적 갈등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재료로 총 12쌍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들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시나리오 속 인물이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의 12쌍이란, Table 2에서와 같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도덕적 이탈 단서를 포함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이 1쌍으로 구성되어 모두 12쌍을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시나리오에 포함된 도덕적 이탈 단서는 한국판 성인용 도덕적 이탈 척도 (Youn, 2014)에 맞춰, 비난 받을 만한 행동·위해한 효과·희생자 3개 하위요인을 반영하고 있는데, 각 요인별로 4쌍씩의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12쌍의 시나리오들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제시된 도덕적 이탈 단서가 적절한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임상 및 상담 심리학 전공 박사과정생 5인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 절차로써, 12쌍의 시나리오들에 대한 정서가 평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12쌍의 시나리오들 중 도덕적 이탈 단서를 포함하지 않은 조건들로 12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한 후, 대학생 129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자신이 시나리오 상의 인물이라면 수치심·죄책감·당혹감을 각기 얼마나 느낄 것인지 문항별로 0점부터 100점까지 5점 간격으로 평정하였다. 무성의하게 작성된 2명의 설문을 제외하고 127명(남자 41명, 여자 86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는데, 각 문항별로 보고된 3가지 정서의 평균을 산출한 후, 3개 하위요인별로 강한 정서 시나리오 2쌍(1, 2위)과 약한 정서 시나리오 2쌍(3, 4위)을 구분하였다. 각 하위요인마다 구분된 강한 정서 시나리오와 약한 정서 시나리오의 정서적 강도는 충분히 차이 났는데, 이는 2위 시나리오와 3위 시나리오 간의 평균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2쌍의 시나리오는 도덕적 이탈 기제 3개 요인과 도덕적 정서 2개 요인의 조합을 통해 총 6개의 하위 요인을 구성하게 되며, 각 하위요인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Table 3과 같다.

실험참여자들은 이상과 같은 절차로 제작된 12개의 시나리오를 읽고서 본인이 시나리오 상의 인물이라면 그 인물과 얼마나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 7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된다.

실험절차

본 실험은 2(집단) × 2(도덕적 정서의 강도) × 2(도덕적 이탈 단

Table 3. Reliability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Scenarios

| Factors of MD | Moral emotions | Number of items | Cronbach's α |
|-----------------------|----------------|-----------------|---------------------|
| Reprehensible conduct | Strong | 2 | .79 |
| | Weak | | .79 |
| Detrimental effects | Strong | 2 | .82 |
| | Weak | | .79 |
| Victim | Strong | 2 | .68 |
| | Weak | | .69 |
| Total | | 12 | .92 |

Table 4. Item Composition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Scenarios

| Moral emotions | Factors of MD | No cues of MD | Cues of MD exist |
|----------------|---------------------|---------------|------------------|
| Strong | Reprehensible | Scenario 1 | Scenario 2 |
| | Conduct detrimental | Scenario 5 | Scenario 6 |
| | Effects victim | Scenario 9 | Scenario 10 |
| Weak | Reprehensible | Scenario 3 | Scenario 4 |
| | Conduct detrimental | Scenario 7 | Scenario 8 |
| | Effects victim | Scenario 11 | Scenario 12 |

서 유무) 설계로서,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실험참여자들은 도덕적 정서 및 이탈 시나리오를 통해 도덕적 정서에 따른 조건(강한 도덕적 정서·약한 도덕적 정서)과 도덕적 이탈 단서에 따른 조건(이탈 단서 있음·이탈 단서 없음)을 각각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Table 4와 같이, 도덕적 정서 및 이탈 시나리오의 12개 시나리오 문항들은 도덕적 이탈 기제 3개 하위요인별로 강한 도덕적 정서와 약한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 단서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이 모두 안배되도록 배치되었다.

또한, 도덕적 정서 및 이탈 시나리오가 포함하고 있는 12개의 시나리오들은 제각기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 내용 자체의 효과라는 혼입 가능성성이 잠재해 있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 및 이탈 시나리오를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여 균등화를 시도하였다. 균등화 절차는 도덕적 이탈 하위 요인 별로 시나리오들이 갖는 이탈 조건이 상호 교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Table 5와 같이, A형에서의 1번 시나리오와 B형에서의 2번 시나리오가 이탈 단서 조건과 문항의 위치를 상호 맞바꾸게 된다.

실험참여자들의 모집 절차는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실험 당일, 실험참여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은 휴대 전화번호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험에 앞서, 연구자는 설문지의 익명처리 및 비밀보장 약속과 함께, 실험장면에서의 응답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

Table 5. Example of Equalization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Scenarios

| Items | Type A | Type B |
|------------|--|---|
| Scenario 1 | <p>You are helping with your professor's research. While you are filing documents on the desk, you see a bunch of midterm examination papers by chance. They have not been evaluated and the professor will not come back to the office for a while. You erase wrong answers on your examination paper and write down the correct answers with a pencil.</p> <p>strong emotion/no cues of MD</p> | <p>As you finish a class and leave a lecture room, you find that it is raining very hard. It would not stop within a short while. While you walk up and down in the lobby of the lecture hall, you catch a sight of umbrellas in the lost-and-found room that are waiting for their original owners. You enter the lost-and-found room and introduce yourself as the owner of one of the umbrellas and take it out. (You are not the original owner of the umbrella.)</p> <p>strong emotion/no cues MD</p> |
| Scenario 2 | <p>As you finish a class and leave a lecture room, you find that it is raining very hard. It would not stop within a short while. While you walk up and down in the lobby of the lecture hall, you catch a sight of umbrellas in the lost-and-found which are waiting for their original owners.</p> <p><u>Suddenly, you remember the umbrella that you left few days ago.</u> <u>Therefore, you enter the lost-and-found room to find the umbrella.</u> <u>However, you cannot find it.</u> You think umbrellas always change hands. You introduce yourself as the owner of one of the umbrellas and take it out.</p> <p>strong emotion/cues of MD exist</p> | <p><u>You are helping with your professor's research. After the midterm examination, you were immediately called to the professor's office to help him. You have been working in the office day and night for four days.</u> While you are filing documents on the desk, you see a bunch of midterm examination papers by chance. They have not been evaluated and the professor will not come back to the office for a while. <u>You hesitate for a second. However, you think you deserve the reward of improving your score.</u> You erase wrong answers on your examination paper and write down the correct answers with a pencil.</p> <p>strong emotion/cues of MD exist</p> |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in Each Conditions of Psychopathic Tendency Group and Normal Control

| Conditions | Psychopathic tendency (n=50) | | Total (n = 100) |
|----------------------------------|------------------------------|-------------|-----------------|
| | M (SD) | M (SD) | |
| Strong emotions/cues of MD exist | 3.67 (1.33) | 2.29 (1.02) | 2.98 (1.37) |
| Strong emotions/no cues of MD | 3.03 (1.17) | 2.15 (0.89) | 2.59 (1.13) |
| Weak emotions/cues of MD exist | 4.77 (1.25) | 3.78 (1.25) | 4.27 (1.34) |
| Weak emotions/no cues of MD | 4.59 (1.27) | 3.41 (1.47) | 4.00 (1.49) |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기 50명씩으로 구성된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실험 참여자들은 균등화된 조건에서 도덕적 정서 및 이탈 시나리오 A형과 B형을 평정하였다. 즉, 정신병질 성향집단 25명-A형, 정신병질 성향집단 25명-B형, 일반집단 25명-A형, 일반집단 25명-B형의 조건으로 처리되었다. 평정에 소요된 시간은 실험참여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간 및 집단내 각 조건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삼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t-검증 통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각 조건별 비윤리적 의사결정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 및 이탈 시나리오를 통해, 실험참여자들에게 도덕적 정서 조건과 도덕적 이탈 조건이 상호 조합되는 시나리오 상황들을 제시한 후, 비윤리적 의사결정 가능성을 평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조합 가능한 시나리오의 조건은 '강한 도덕적 정서-도덕적 이탈 단서 있음', '강한 도덕적 정서-도덕적 이탈 단서 없음', '약한 도덕적 정서-도덕적 이탈 단서 있음', '약한 도덕적 정서-도덕적 이탈 단서 없음'의 4가지로 구분된다.

각 시나리오 조건에 대한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집단

Table 7.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2 \times 2 \times 2$) on Unethical Decision Making

| Variance sources | | SS | df | MS | F |
|------------------|-------------------------|--------|----|--------|-----------|
| Between | Groups (A) | 122.84 | 1 | 122.84 | 37.70*** |
| | Error (A) | 319.35 | 98 | 3.26 | |
| Within | Moral emotions (B) | 182.7 | 1 | 182.7 | 213.00*** |
| | A \times B | 0.05 | 1 | 0.05 | 0.06 |
| | Error(B) | 84.06 | 98 | 0.86 | |
| | Moral Disengagement (C) | 11 | 1 | 11 | 9.40** |
| | A \times C | 0.61 | 1 | 0.61 | 0.52 |
| | Error(C) | 114.75 | 98 | 1.17 | |
| | B \times C | 0.34 | 1 | 0.34 | 0.51 |
| | A \times B \times C | 3.18 | 1 | 3.18 | 4.77* |
| | Error (B \times C) | 65.4 | 98 | 0.67 |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8. Results of Post-hoc in Each Conditions on Unethical Decision M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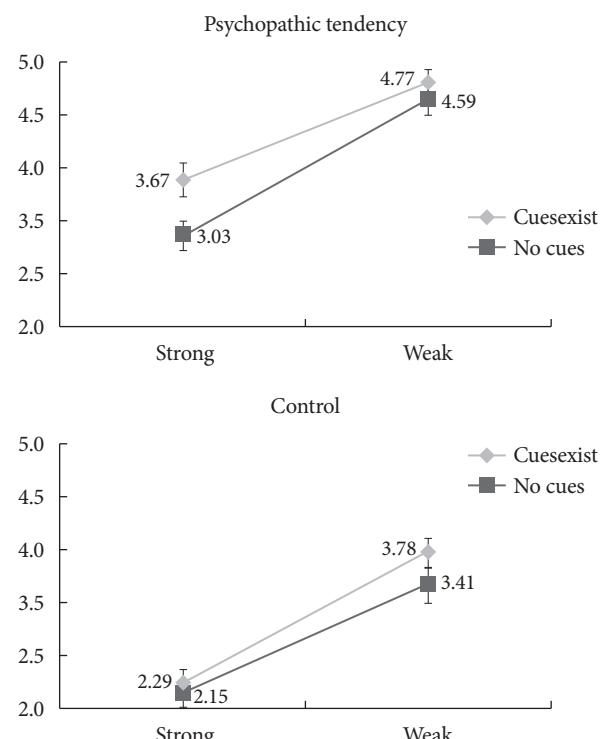
| Moral emotions | MD | Psychopathic tendency (n=50) | | Control (n=50) | |
|----------------|------------|------------------------------|---------|----------------|-------|
| | | t | | t | |
| | | M | SD | M | SD |
| Strong | Cues exist | 3.67 (1.33) | 3.72*** | 2.29 (1.02) | 0.87 |
| | No cues | 3.03 (1.17) | | 2.15 (0.89) | |
| Weak | Cues exist | 4.77 (1.25) | 0.79 | 3.78 (1.25) | 1.76* |
| | No cues | 4.59 (1.27) | | 3.41 (1.47) | |

* $p < .10$. *** $p < .001$.

간 차이를 검증하고, 도덕적 정서 조건과 도덕적 이탈 조건에 따른 집단간 및 집단내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 측정 삼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단간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정신병질 성향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98) = 37.70, p = .001$.

집단내 변인들에서는 도덕적 정서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강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상황보다는 약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98) = 9.40, p = .01$. 이밖에, 집단 및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F(1, 98) = 4.77, p = .05$. 이를 사후검증하고자,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강한 도덕적 정서 및 약한 도덕적 정서 조건에 대한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평균비교 결과는 Table 8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 Effect of moral emotion and moral disengagement on unethical decision making of psychopathic tendency group and normal control.

사후검증을 위한 평균비교 결과, 정신병질 성향집단에서는, 강한 도덕적 정서 조건에서 도덕적 이탈 단서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49) = 3.72, p < .001$. 그러나 약한 도덕적 정서 조건에서 도덕적 이탈 단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49) = 0.79, ns$. 일반집단에서는, 강한 도덕적 정서 조건에서 도덕적 이탈 단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49) = 0.87, ns$. 그러나 약한 도덕적 정서 조건에서 도덕적 이탈 단서의 효

과는 유의한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49)=1.76, p < .10$.

논 의

본 연구는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정서 및 인지 과정을 이해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의 강도 및 도덕적 이탈 단서 유무가 조작된 도덕적 정서 및 이탈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연구자들이 설정한 일곱 개의 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설 1, 2, 3에 대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것 외에도, 옳고 그름이 명백한 윤리적 갈등 상황을 이용한 본 연구의 특징적인 설계를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논의를 가능케 한다.

첫 번째 가설인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일반집단보다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단간 주효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질이 반영하는 행동표현형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상기한 바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들이 정신병질자들은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이 우세할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Cima, Tonnaer, & Hauser, 2010; Dolan & Fullam, 2010; Glenn et al., 2009). 이처럼 연구결과들이 혼재된 이유에 대해 Bartels와 Pizarro (2011)는 두 가지 가능성은 제언한 바 있다. 한 가지는 선행연구에 참여한 정신병질자 또는 정신병질 성향자들이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에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방식대로 반응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신병질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는 다르게 옳고 그름이 명백한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를 사용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도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우세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신병질자들의 조종적인 수검태도가 결과에 작용했을 수 있다는 추론은 개연성이 적어 보인다. 오히려, 옳고 그름이 모호하고 자기 관여 수준이 낮은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가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경향성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결과기반적 의사결정과 정신병질 특성 및 마키아벨리즘 간의 정적 관련성을 근거로,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이 공리적 관심이나 신중하게 손익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정서적 무감각, 조종적 태도 등 혐오적인 특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신병질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이 우세한 경우). 본 연구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반응하여 윤리적 의사결

정을 선택한 경우는 규범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원칙기반적 의사 결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수용한 경우는 수혜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정서를 통제하고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결과기반적 의사결정과 유사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이 공리적 관심이나 손익에 대한 신중한 고려뿐만 아니라 정신병질의 혐오적인 특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Bartels와 Pizarro (201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인 ‘강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보다는 약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정서적 강도의 주효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일부 인지이론가들은 결과기반적 의사결정과 원칙기반적 의사결정 간의 질적인 우열을 가정하기도 한다(Baron & Ritov, 2009; Bartels & Pizarro, 2011; Sunstein, 2005). Moore, Clark와 Kane(2008)은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큰 작업기억 용량,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된 의사결정 시간과 관련됨을 근거로 보다 신중하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원칙기반적 의사결정은 적절하지 못한 선택으로서, 정서적 부하에 따른 인지적 오류 또는 의사결정의 실패로 간주되는데, 이는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가 강한 도덕적 정서를 자극할수록 더욱 현저히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e et al.,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칙기반적 사고가 윤리적 의사결정에 해당되며, 강한 도덕적 정서경험이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기반적 사고가 공리에 대한 고려나 신중한 의사결정 외에도 혐오적 특성과도 관련될 수 있는 것처럼, 원칙기반적 사고 또한 인지적 오류나 의사결정의 실패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과도 관련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기능의 활용도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 양식의 우열을 설명하는 것은 도덕적 정서경험의 효과 및 그 진화적 의미를 축소한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라 판단된다(Haidt, 2001).

세 번째 가설인 ‘도덕적 이탈 단서가 없는 윤리적 갈등상황보다는 도덕적 이탈 단서가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을 것이다’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도덕적 이탈의 주효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작된 도덕적 이탈 단서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인지적 왜곡을 조장할 수 있는 상황적 단서들로서, 본 연구결과는 도덕적 이탈이 맥락 및 상황적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Kish-Gephart et al., 2014; Shu, Gino, & Bazerman, 2011; White-Ajmani & Bursik, 2014). 또한, 상기한 바와 같아, Bartels와 Pizarro

(2011)는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이 공리적 관심이나 손익에 대한 신중한 고려 외에도, 정신병질의 혐오적 특성과도 연결돼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바꿔 말하면, 이는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인지적 노력이 공리적 관심을 향할 수도, 이기적 관심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기반적 의사결정을 비윤리적 의사결정이 반영하고 있는데,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도덕적 이탈 단서의 주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Bartels와 Pizarro(2011)가 제안한 결과기반적 의사결정과 혐오적 특성 간의 경로에 인지적 노력으로서 도덕적 이탈이 작용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겠으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 가설부터 일곱 번째 가설까지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단 및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 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결과를 요약해 보면, 도덕적 정서의 강도와 도덕적 이탈 단서 유무에 따라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강한 도덕적 정서가 자극되는 상황에서, 일반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도덕적 이탈 단서 유무와 관계없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일반집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탈 단서가 제시될 때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한 도덕적 정서가 자극되는 상황에서, 일반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도덕적 이탈 단서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보다 제시되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일반집단보다 높았으며, 도덕적 이탈 단서 유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즉, 강한 도덕적 정서가 자극될 경우, 일반집단은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욕구를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원칙기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신병질 성향집단은 강한 도덕적 정서가 자극되는 상황에서도 인지적 왜곡을 통해 자기처벌적 경험을 극복하고 개인적 이익에 동기화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약한 도덕적 정서가 자극되는 상황에서, 일반집단은 인지적 왜곡이 용이할 때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지지만, 정신병질 성향집단은 인지적 왜곡 없이도 적극적으로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약한 도덕적 정서 조건에서 나타난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결과는 특별히 주목해 볼만하다. 즉, 약한 도덕적 정서 조건에서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Table 8과 Figure 1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 중 가장 높았으며, 도덕적 이탈 단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정서적 기제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미미했으며, 도덕적 이탈이라는 인지적 기제도 필요하지 않

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한 도덕적 정서 조건에서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도덕판단의 이중과정이론을 통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엔 정서적 기제나 인지적 기제도 아닌 자기중심성과 이기적 욕구라는 동기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속 연구를 통한 검토 및 정교화 된 설명이 요구된다. 이밖에, 여러 정신병질 관련 문헌에서는 정신병질자들의 도덕적 정서경험이 결여되어 있거나 손상돼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Cleckley, 1941; Karpman, 1948; Millon et al.,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정서적 강도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신병질을 다루는 연구가 정신병질 특성의 양적 차이에 기반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처럼(Hare & Neumann, 2008; Mullins-Nelson et al., 2006; Neumann & Hare, 2008), 정신병질자들의 정서경험도 결여나 손상이 아닌, 양적인 차이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하여 특정 능력의 결합을 통한 설명을 넘어서, 윤리적 갈등상황이라는 상황적 맥락 및 관련 작동 기제들의 양적인 차이를 통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신병질의 질적인 차이를 근거로 강력한 안정성 및 치료불가능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 선행연구(Kwak & Kim, 2008; Mealey, 1995; Vitale et al., 2005)에서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즉,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관여하는 맥락 및 심리적 기제들을 검토함으로써 통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임상 및 교정 장면에 있어서도 정신병질 특성의 양적 차이를 고려한 선별 및 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서적 기제 및 인지적 기제를 각기 다뤄온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두 가지 기제를 모두 포괄한 통합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서적 및 인지적 기제 외에도, 윤리적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제3의 기제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정신병질 연구는 표본집단에 대한 접근성과 측정의 문제라는 제약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지역사회 표본을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Falkenbach, Stern, & Greevy, 2014; Seara-Caroso, Neumann, Roiser, McCrory, & Viding, 2012; Stevens, Deuling, & Armenakis, 2012). 본 연구는 정신병질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로서, 국내 정신병질 연구에 표본집단 선별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실험집단은

정신병질 성향자들로 구성되었다. 정신병질 성향집단이라는 표본 집단 구성의 이점과는 별개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대상은 정신병질자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정신병질자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정신병질은 병인론 및 기질적, 성격적 특성을 근거로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로 구분된다. 이들은 반사회성에 있어서도 상호 이질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keem, Poythress, Edens, Lilienfeld, & Cale, 2003),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두 가지 정신병질을 구분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집단을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로 구분하여 보다 정교한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Babiak, P., & Hare, R. D. (2006). *Snakes in suits: When psychopaths go to work*. New York: Harper Collins.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Hillsdale, NJ: Erlbaum.
- Bandura, A. (1999). Moral disengagement in the preparation of inhumanities.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193-209.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364-374.
- Barnes, G. A., Welte, J. W., Hoffman, J. H., & Dintcheff, B. A. (2005). Shared predictors of youthful gambling,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 19, 165-174.
- Baron, J., & Ritov, I. (2009). Protected values and omission bias as deontological judgments. In D. M. Bartels, C. W. Bauman, L. J. Skitka, & D. L. Medin (Eds.). *Moral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Vol. 50. pp. 133-167). San Diego, CA: Elsevier.
- Bartels, D. M., & Pizarro, D. A. (2011). The mismeasure of morals: Antisocial personality traits predict utilitarian responses to moral dilemmas. *Cognition*, 121, 154-161.
- Benjamin, L. S. (1996). *Interperson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Benning, S. D., Patrick, C. J., & Lacono, W. G. (2005). Psychopathy, startle blink modulation and electrodermal reactivity in twin men. *Psychophysiology*, 42, 753-762.
- Christensen, J. F., & Gomila, A. (2012). Moral dilemmas in cognitive neuroscience of moral decision-making: A principled review.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6, 1249-1264.
- Cima, M., Tonnaer, F., & Hauser, M. (2010). Psychopaths know right from wrong but don't care. *Social Cognitive Affective Neuroscience*, 5, 59-67.
- Cleckley, H. (1941). *The mask of sanity*. St. Louis, MO: Mosby.
- Conway, P., & Gawronski, B. (2013). Deontological and utilitarian inclinations in moral decision making: A process dissoci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216-235.
- Detert, J. R., Treviño, L. K., & Sweitzer, V. L. (2008). Moral disengagement in ethical decision making: A study of antecedents and outco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 374-391.
- Diener, E. (1977). Deindividuation: Causes and consequenc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 143-156.
- Dolan, M. C., & Fullam, R. S. (2010). Moral/conventional transgression distinction and psychopathy in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 offend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995-1000.
- Edens, J. F., Marcus, D. K., Lilienfeld, S. O., & Poythress, N. G. (2006). Psychopathic, not psychopath: Taxometric evidence for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psychopath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 131-144.
- Falkenbach, D. M., Stern, S. B., & Creevy, C. (2014). Psychopathy variant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a subtyping model in a community sample.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5, 10-19.
- Farrow, T. F. D., & Woodruff, P. W. R. (2007). *Empathy in mental ill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der, E. M. (1973). Moral development and parent behavior antecedents in adolescent psychopath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2, 37-43.
- Gini, G., Pozzoli, T., & Bussey, K. (2015). Moral disengagement moderates the link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aggressive behavior among early adolescents. *Merrill-palmer Quarterly*, 61, 51-67.
- Glenn, A. L., Kurzban, R., & Raine, A. (2011). Evolutionary theory and psychopath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 371-380.
- Glenn, A. L., Raine, A., Schung, R. A., Young, L., & Hauser, M. (2009). Increased DLPFC activity during moral decision-making in psychopathy. *Molecular Psychiatry*, 14, 909-911.
- Greene, J. D. (2007). Why are VMPFC patients more utilitarian? A dual-process theory of moral judgment explain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 322-323.
- Greene, J. D., Nystrom, L. E., Engell, A. D., Darley, J. M., & Cohen, J. D. (2004). The neural bases of cognitive conflict and control in moral judgment. *Cognition*, 107, 1144-1154.
- Greene, J. D., Sommerville, R. B., Nystrom, L. E., Darley, J. M., & Cohen, J. 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 2105-2108.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 Hare, R. D. (1999).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re, R. D., Hart, S. D., & Harpur, T. J. (1991). Psychopathy and the DSM-IV criteria fo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391-398.
- Hare, R. D., & Neumann, C. S. (2008). Psychopathy as a clinical and empirical construc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217-246.
- Hauser, M., Cushman, F., Young, L., Jin, R., & Mikhail, J. (2007). A dissociation between moral judgment and justification. *Mind and Language*, 22, 1-21.
- Hicks, B. M., Markon, K. E., Patrick, C. J., Krueger, R. F., & Newman, J. P. (2004). Identifying psychopathy subtypes on the basis of personality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16, 276-288.
- Hyde, L. W., Shaw, D. S., & Moilanen, K. L. (2010). Developmental precursors of moral disengagement and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197-209.
- Jones, S., Cauffman, E., Miller, J. D., & Mulvey, E. (2006). Investigating different factor structures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findings. *Psychological Assessment*, 18, 33-48.
- Jurkovic, G. J., & Prentice, N. M. (1977). Relation of moral and cognitive development to dimensions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414-420.
- Karpman, B. (1948). The myth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4, 523-534.
- Kelman, H. C. (1973). Violence without moral restraint: Reflections on the dehumanization of victims and victimizers. *Journal of Social Issues*, 29, 25-61.
- Kiehl, K. A., Aharoni, E., & Armstrong, W. S. (2012). Can psychopathic offenders discern moral wrongs? A new look at the moral/conventional distinc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 484-497.
- Kish-Gephart, J., Detert, J., Treviño, L. K., Baker, V., & Martin, S. (2014). Situational moral disengagement: Can the effects of self-interest be mitigated?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5, 267-285.
- Koenigs, M., Kruepke, M., Zeier, J., & Newman, J. P. (2012). Utilitarian moral judgment in psychopathy.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7, 708-714.
- Koenigs, M., Young, L., Adolphs, R., Tranel, D., Cushman, F., Hauser, M., & Damasio, A. (2007). Damage to the prefrontal cortex increases utilitarian moral judgments. *Nature*, 446, 908-911.
- Kohlberg, L. (1966).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rientation toward a moral order: I. Thought. *Vita Humana*, 6, 11-33.
- Koven, N. S. (2011). Specificity of meta-emotion effects on moral decision-making. *Emotion*, 11, 1255-1261.
- Kwak, K. J. (1998). Self-efficacy and moral justification (I): The developmental patter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al*, 11, 1-11.
- Kwak, K. J., & Kim, Y. S. (2008). A review on the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y: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 71-89.
- Lammers, J., & Stapel, D. M. (2009). How power influences mor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279-289.
- Lee, M., & Prentice, N. M. (1988). Interrelations of empathy, cognition and moral reasoning with dimensions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127-139.
- Lee, M. W., Sul, S. H., & Kim, H. J. (2014). The impact of moral decision style on impression Form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 201-223.
- Lee, S. J., & Gong, J. K. (2007). Characteristic analysis of domestic homicidal behavior based on psychopathy.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3, 1-23.
- Lee, Z., & Salekin, R. T. (2010). Psychopathy in a noninstitutional sample: Differences in primary and secondary subtypes. *Personality Disorder: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3, 153-169.
-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 151-158.
- Lieberman, J. D., Solomon, S., Greenberg, J., & McGregor, H. A. (1999). A hot new way to measure aggression: Hot sauce allocation. *Aggressive Behavior*, 25, 331-348.
- Lilienfeld, S. O. (1998). Methodological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99-125.
- Lilienfeld, S. O., & Widows, M. R. (2005). *Professional manual for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Link, N. F., Scherer, S. E., & Byrne, P. N. (1977). Moral judgement and moral conduct in the psychopa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22, 341-346.
- Lykken, D. T. (1995). *The antisocial personalities*. Hillsdale, NJ: Erlbaum.
- Marcus, D. K., John, S. L., & Edens, J. F. (2004). A taxometric analysi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626-635.
- Mealey, L. (1995). The sociobiology of sociopathy: An integrated evolutionary model.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9, 523-540.
- Mendez, M. E., & Shapira, J. S. (2009). Altered emotional morality in frontotemporal dementia. *Cognitive Neuropsychiatry*, 14,

- 165-179.
- Millon, T., Grossman, S., Millon, C., Meagher, S., & Ramnath, R. (2004). Personality disorders in modern life(2n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Moore, A. B., Clark, B. A., & Kane, M. J. (2008). Who shalt not kill?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capacity, executive control, and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9, 549-557.
- Moore, C. (2008). Moral disengagement in processes of organizational corrup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80, 129-139.
- Mulford, C. F. (2004). Restorative justice and the development of empathy, remorse and moral disengagement in adolescent offend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4, 5256.
- Mullins-Nelson, J. L., Salekin, R. T., & Leistico, A. M. R. (2006). Psychopathy,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ability in a community sampl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psychopathy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5, 133-149.
- Neumann, C. S., & Hare, R. D. (2008). Psychopathic traits in a large community sample: Links to violence, alcohol use, and intellig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893-899.
- Neumann, C. S., Hare, R. D., & Newman, J. P. (2007). The Superordinate nature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1, 102-107.
- Nichols, S., & Mallon, R. (2006). Moral dilemmas and moral rules. *Cognition*, 100, 530-542.
- Opotow, S. (1990). Moral exclusion and injustice: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 1-20.
- Paciello, M., Fida, R., Tramontano, C., Lupinetti, C., & Caprara, G. V. (2008). Stability and change of moral disengagement and its impact on aggression and violence in 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9, 1288-1309.
- Park, Y. S., Kim, U. C., & Kim, Y. H. (2007). Longitudinal analysis of factor influencing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social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3, 1-41.
- Paulhus, D. L., Neumann, C. S., & Hare, R. D. (2011). Manual for 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Toronto, ON: Multi-Health Systems.
- Schnall, S., Haidt, J., Clore, G. L., & Jordan, A. H. (2008).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096-1109.
- Seara-Cardoso, A., Neumann, C., Roiser, J., McCrory, E., & Viding, E. (2012). Investigating associations between empathy, morality and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in the general pop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 67-71.
- Shin, H. I. (2015). Emotional and cognitive response to the pain of other: Perspective taking and cognitive sty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4, 685-707.
- Shu, L. L., Gino, F., & Bazerman, M. H. (2011). Dishonest deed, clear conscience: When cheating leads to moral disengagement and motivated forget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 330-349.
- Shulman, E. P., Cauffman, E., & Piquero, A. R. (2011). Moral disengagement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orally disengaged attitude and offe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7, 1619-1632.
- Skeem, J., Poythress, N., Edens, J., Lilienfeld, S., & Cale, E. (2003). Psychopathic personality or personalities? Exploring potential variants of psychopathy and their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513-546.
- Stanger, N., Kavussanu, M., Boardley, I. D., & Ring, C. (2013). The influence of moral disengagement and negative emotion on antisocial sport behavior.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2, 117-129.
- Staub, E. (1989). *The roots of evil: The origins of genocide and other group viol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vens, G. W., Deuling, J. K., & Armenakis, A. A. (2012). Successful psychopaths: Are they unethical decision-makers and wh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5, 139-149.
- Stone, M. H. (1993). *Abnormalities of personality: Within and beyond the realm of treatment*. New York: Norton.
- Sunstein, C. R. (2005). Moral heuristic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8, 531-542.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 Thomson, J. J. (1986). *Rights, restitution and ris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revathan, S., & Walker, L. J. (1989). Hypothetical versus real-life moral reasoning among psychopathic and delinquent you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 91-103.
- Tyszka, T., & Zalesiewicz, T. (2012). The strength of emotions in moral judgment and decision-making under risk.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43, 132-144.
- Ugaziou, G., Lamm, C., & Singer, T. (2011). The role of emotions for moral judgments depends on the type of emotion and moral scenario. *Emotion*, 12, 579-590.
- Vitacco, M. J., Neumann, C. S., & Jackson, R. L. (2005). Testing a four-factor model of psychopathy and its association with ethnicity, gender, intelligence, and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466-476.
- Vitale, J. E., Neuman, J. P., Bates, J. E., Goodnight, J., Dodge, K. A., & Pettit, G. S. (2005). Deficient behavioral inhibition and anomalous selective atten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with psychopathic traits and low-anxiety trai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 461-470.
- Walters, G. D., Duncan, S. A., & Mitchell-Perez, K. (2007). The

- latent structure of psychopathy: A taxometric investigation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n a heterogeneous sample of male prison inmates. *Assessment*, 14, 270-278.
- Warren, G. C., & Clarbour, J. (2009).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y and indirect aggression use in a noncriminal population. *Aggressive Behavior*, 35, 408-421.
- White-Ajmani, M. L., & Bursik, K. (2014). Situational contex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disengagement and aggression. *Psychology of Violence*, 4, 90-100.
- Youn, H. (2014). *Study on unethical decision making of people with psychopathic tendency: Focused on moral emotion and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Youn, H., & Lee, Y. H. (2016).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Mediating effect of moral emotion and moral disengagemen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453-472.

국문초록

정신병질 성향자들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도덕적 정서의 강도 및 도덕적 이탈 단서의 효과

윤 황 ·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관여하는 인지 및 정서과정을 이해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경험하는 도덕적 정서의 강도 및 도덕적 이탈 단서에 정신병질자들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SRP 점수에 기초하여 대학생으로 구성된 정신병질 성향집단 50명과 일반집단 50명을 선발한 후 도덕적 정서의 강도와 도덕적 이탈 단서가 조작된 윤리적 갈등 시나리오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병질 성향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도덕적 정서경험이 강할 때보다는 약할 때, 도덕적 이탈 단서가 없을 때보다는 제시되었을 때,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집단은 약한 도덕적 정서가 자극되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이탈 단서가 주어졌을 때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았으나, 강한 도덕적 정서가 자극되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이탈 단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신병질 성향집단은 약한 도덕적 정서가 자극되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이탈 단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한 도덕적 정서가 자극되는 상황에서는 도덕적 이탈 단서가 주어졌을 때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임상적 함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정신병질, 도덕성,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 비윤리적 의사결정